

법구경
백 년 동안 공양물을
올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의 존경이
훨씬 값이 있느니라.

현대불교@사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그레이 두리알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두리알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유력'

자승·각명·대우 스님 후보 자격 인정... 혼전 없이 22일 선거 치를 듯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종무원장을 4년간 이끌 수장이자 2000만 불교도를 대표한 지도자로 활동할 총무원장 선거(10월 22일)가 목전에 다가왔다. 기호 1번 자승 스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종단 선거 마다 발생한 후폭풍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 12-14일 조계종 중앙선거 위(위원장 심경) 후보 등록결과 전 중앙종회 의장 자승(55) 스님과 속리산 법주사 봉곡암 감원 각명(58) 스님, 전 선운사 주지 대우(63) 스님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접수 규정에 따라 자승 스님은 기호 1번, 각명 스님 기호 2번, 대우 스님 기호 3번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위는 이어 13일 각 교구 선거인단을 확정, 15일 선거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격을 심사해 세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 후보 등록과 더불어 각 후보들은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자승 스님은 12일 후보 등록 이후



10월 15일 열린 제211차 중앙선거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위원 스님들이 후보자 신상명세를 살펴보고 있다.

출마회전, 13일 종정 법전 스님 예방을 비롯해 하루 2-3개 교구를 방문하는 선거운동에 나섰다. 기호 2번 각명 스님도 13일 출마회전을, 기호 3번 대우 스님도 14일 출마회전을 여는 등 선거 운동에 나섰다. 후보 마감을 전후해 물망에 올랐던 각 예비후보들의 성명도 이어졌

다. 출마를 선언했던 종하 스님은 11일 "신인 총무원장이 종단과 한국불교의 증흥과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기를 기원한다"며 철회의사를 밝혔다. 총무원장 후보 물망에 오른 정념 스님도 14일 "새 불교를 만들어 가는 통찰력 있는 총무원장이 선출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후보로 회자되던 월서·도

영 스님도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기호 1번 자승 스님이 선거인단 80여명인 중앙종회 총무원장과 각기 10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20개 교구 본사의 추대를 받은 점을 감안, 총 320표 중 최소 270표 이상을 득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승 스님의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후보 비방전도 고조되고 있다. 올해 10월 9일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불교조계종 정법수호회'는 자승 스님을 상대로 14일 서울민사지법에 후보등록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 선대위는 "종단선거 폐단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문서 유포와 사회법 제소행위는 반불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종 행위에 대해 종단과 협력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데스크 초대석
산악인 엄홍길 9면

영봉(해종)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종)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 일 시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빈달-마일 : 코 스 ●
리-볼블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 시-빈달-시발라야-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
28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 금 계 좌 ●
10월 30일(금) : 접 수 마 감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
02-2004-8233, 017-236-5769 인터넷 부국장 : 문 의 ●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정점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게 불교
한국판 가족판타지

'해운대' 감독 윤제균

1200 만 관객을 동원해 올해 최대 흥행 영화 '해운대'를 제작한 윤제균 감독이 자기작에서는 불교 쓰나미로 전 세계를 휩쓸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윤 감독은 후속작으로 '템플스테이(Templestay, 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계 경주를 무대로 제작된 영화는 한국 불교 수행체현의 대표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소재로 제작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불교계 내외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기작은 해외를 겨냥한 영화입니다. 서양에 어필하기 위한 차별된 소재를 찾던 중 가장 한국적인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외국 소년들이 한국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겪는 모험을 그린 가족판타지로서 '주만지' '박물관'이 살아있다'와 견줄 영화로 기획 중이다.

후속작 '템플스테이' 준비

이번 영화에서도 그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석굴암 본존불 등 경주의 다양한 불교문화재를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게 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동안 윤제균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데 불교에서 소재를 많이 찾아왔다. 그는 피천득 시인의 글귀를 보고 '해운대'를 만들어 불교적 인연을 영화에 담았다. <반아심경>의 공사상을 담은 '색즉시공'도 그의 대표 작품이다. '색즉시공'은 저급영화라는 혹평과 불교평하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색욕이란 허상을 통해 생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을 다뤘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사상, 인연법 등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사상이 담긴 책 속의 법구(法句)들은 세상을 참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요, 한국을 대표할 만한 불교철학에 대해서 널리 알고 싶습니다." 촬영에 앞서 윤제균 감독과 스태프들은 서울 근교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체험도 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시나리오의 수정 중에 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할 기회는 없어 체험할 만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작 불사인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사상을 기본으로 가족애를 다룬다. 이번 영화 한편이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윤제균 감독의 활약에 거는 사부대중의 기대가 크다. 이상연 기자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황백스님이 어느 날 백장선사에게 물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禪의 진수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백장선사가 잠자코(良久)있자 황백이 다그치듯 말했다.
"스승께서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禪을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스승은 한 마디를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禪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네."
修行의 目的은 깨달음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우리는 화론(化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한다.
여기 열린 마당에 모여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 주제와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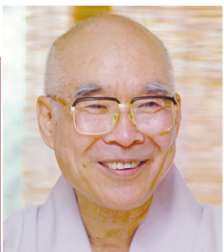
- ①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고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 ②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시몽스님 (백양사 주지)
- ③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 - 도법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④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용타스님 (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 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월암스님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 ⑥ 초기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각목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 ⑦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목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 (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동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처 : 백양사 종무소
- 문 의 : ☎ 061)392-7502, 전송 392-208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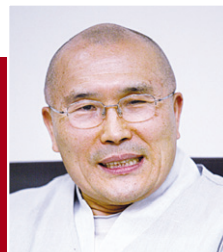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도법스님(인드라마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각목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향봉스님(익산 사자암 주지)